



스물여덟번째방주 이야기 (2020년 7월-9월)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두툼한잠바를 입어야 활동이 가능할만큼 쌀쌀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3천명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있을 선거로 인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배 모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어서 아직도 모임을 갖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과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거리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정상 수업을 하지만 몇 명, 몇십명씩 감염자들이 나오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하지만 열악한 시스템으로 사실상 수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 없이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 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는 지금은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주했던 사역들을 돌아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습니다.
2. 아내 김경희 선교사가 얼굴에 나타난(햇빛 알레르기) 피부병 증상이 심해져서 한국에 다녀왔고,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3. 사역을 위해서 구입했던 봉고차의 잔금을 완납했고, 사역자 세르게이가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4. 4년이라는 시간동안 함께 했던 사역자 세르게이(나스타)에게 작은방주 교회를 위임하고, 두번째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역나눔)

예전 같으면 여름행사와 단기팀 방문 등의 일정으로 분주했을 3/4분기가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확진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초청하거나 어딘가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소규모 모임과 사역자들과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8월말에는 한가지 결단을 하면서 사역의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8월말에 교회 사역을 후임자인 세르게이(나스타)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내년 여름쯤에 이양을 계획했지만이번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선교사로써의 한계와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였고, 9월부터 세르게이가 예배를 전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조금 빠른 듯 하지만 기도 가운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와 더불어분리 독립을 준비하고 있고, 10월 이후에는 가까운 곳에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자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역 이양 후에 학생들과 청년들,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고, 후임 사역자를 잘 따라주고, 소모임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모든 위임을 한 후,9월 한달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내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의 연약함과 늘 함께 했지만 소홀했던 아내의 마음, 아이들, 주변의 동역자들이 조금 더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을 하고 있는 지금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나스타)에게 이양된 “작은방주”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현재는 두번째 통역자였던 보그단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그단(외대 한국어 학과 3학년)



(세르게이.나스타.저희부부)

현재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만남을 갖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이미 개척되어 사역을 진행하는 플라체스카(비탈리.마리아나), 체로노바이(사샤.류다), 말라브람카(비타.알료사), 바이블 타임 가족들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작했던 급식사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정 중단한 상태이지만 개별적인 요

청이 있을 경우, 외면하지 않고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10월-12월 계획)

교회 사역을 위임하면서 바이블타임, 태권도, 한글학교 사역도 금년 12월까지만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에 붙잡은 것들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현지교회 지원사역, 구제사역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고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미리 정해진 계획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있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11월까지 연장된 집회금지의 행정절차가 끝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세워지는 교회가 더 잘 세워지도록 집중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방주 이야기)

금년 5월에 결혼을 한 첫째**시온(승호)**이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잘 적응하고 예배모임이 자유롭지 않지만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영상 예배를 위한 반주와 찬양팀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둘째 **지성**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찬하**와 넷째 **건하**는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업에 잘 적응하고 있고, 찬하는 찬양팀 리더, 채플린으로 섬기고 있고, 건하 또한 찬양팀에서 드럼(카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사춘기를 지나는 과정인지! 거울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패션에 신경을 쓰느라 가끔 학교에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순종해 주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얼굴 피부에 나타난 증상으로 8월에 출국을 했다가 9월초에 입국을 한 **김경희 선교사**는 피부병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완치하지 못하고 들어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퍼런스와 더불어 SQ(영적지수)라는 전도프로그램(상담의 일종)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현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세르게이(나스타)는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사역자가 살던 공간에는 3명의 간호사들이 세입자로 들어왔고, 이 수입은 사역자를 위한 지원과 분리 독립된 방주교회를 위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통역을 맡았던 나스타의 역할은

외대3학년에 다니면서 함께 통역을 해 왔던 **보그단**이 이어서 준비하면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아내 김경희 선교사의 얼굴 피부트러블이 완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분리 독립하는 세르게이(나스타)가 “작은방주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응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4.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 주시고, 두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시작이 순적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이 땅에 머물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후원계좌국민502302-04-018046 박철규

외환990-018691-165 침례해외선교회

카톡ID CKGHPARK

전화번호39)093-160-2043 / 070-7518-7443

주소03170) st.Yesenina 22, Kyiv, Ukraine (Cheol Kyu Park)

<https://m.blog.naver.com/ckghpark>

